

“돈이 없어도 전시는 할 수 있어야죠”

오브제 갤러리, 15년 이어온 메세나 실천 통한 조용한 헌신

전주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골목에 자리한 오브제 갤러리(대표 임수영(사진))가 15년 넘게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무료 전시를 이어오며 '민간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개방성은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전시 콘텐츠 또한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회화와 사진은 물론 도자기, 섬유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이 공간을 거쳐 가며, 지역 예술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방성은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비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카페형 공간이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고,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한 뒤 직접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오브제 갤러리도 여는 가게와 같이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는 운영의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다수의 문화공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오브제 갤러리 역시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지만, 전시를 중단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대신 카페 메뉴를 자체 개발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선보인 수제 음료와 빙수

등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는 갤러리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문화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 성과로 이어진 셈이다.

오브제 갤러리의 활동은 전주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정읍 지역의 폐교를 리모델링해 또 하나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동일한 방식의 무료 전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행정 주도의 문화정책을 넘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화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사례로 평가된다.

오브제 갤러리 임수영 대표는 “전시 기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작가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이곳에서 시작한 경험이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록이 이어진 오브제 갤러리 임수영 대표의 메세나(Mecenat) 실천은 ‘예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거창한 지원이나 제도에 기대지 않고도, 지역 예술인과 시민을 잇는 문화의 장을 지속해 온 이들의 행보가 향후 민간 문화예술 지원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6부 ‘굿패와 수녀’ (3)

문둥병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근대, 너 손이랑 다리랑 낫바대기에 뽕결게 생기는 사마귀 같은 것은 뭣이냐? 자꾸 피가 나는 것 같더만, 피부가 썩어들어 가는 거 아니냐? 병원에 가봤냐?”
반년쯤 지난 어느 날, 같이 방을 쓰는 응기장이 작은 아들이 오래오래 참았다가 마음먹고 물어보는 것인지 남준의 눈치를 살피며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몸이 붓기 시작했고 저녁이며 뼈마디가 수서서 끄떡없었는데 응기장이 작은아들은 무슨 젊은 놈이 그만한 일로 끄떡없냐고 타박을 쳤다.

손가락과 발가락, 귀 부위 등에 콩알만한 결절이 생기고 곧 터져서 고름이 흘렀는데 고기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치아가 빠지고 눈썹도 빠져나갔다. 점점 몸풀이 뭉개진 할흠 덩어리처럼 변해갔다.

“뒀…… 그냥 피부병 같은데 잘 낫지를 않네오, 호호호.”
남준은 얼른 대답을 못하다가 적당히 얼버무리려 했다.

“피부병…… 정도가 아니다.”
작은아들의 눈초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꼭 붙잡고 있는 듯했다.

“야, 내가 볼 적엔 말이야, 남준이 그놈 분명히 문둥병이다, 문둥병.”
밤에 소변을 보고 오다가 옆방에서 들려오는 말을 남준은 듣고 말았다. 그 말은 호박벌이 되어 남준의 이마를 정통으로 쏘고, 남준은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외출하기를 하고 있었다. 외출에서 떨어지면 천 길 낭떠러지였다. 남준이라고 왜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혹시 내가 문둥이가 되는 건 아닌가.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싶었다.

그건 외출을 타는 거였다. 외출을 타려면 되도록 외출 말고 다른 데를 봐서는 안된다. 오직 외출만 보고 걸어야 한다. 그동안 외출만 바라보고 달려왔다. 문둥병이 아닐 거라는 외출을 타고 달려왔다. 이제 외출에서 떨어져야 하는 것인가.

거울을 볼 일은 없지만 샘에 가서 세수를 할 때 물에 비친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애써 외면했다.

“꽃내야 한담께요! 문둥이를 데리고 있으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문둥이가 된담께요! 신고라도 해서 잡아가게 해야지 이거 원! 만약 안 좇아내면 우리가

나갈라요!”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남준은 장승이 되어 멈춰서고 말았다.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문둥이가 아깝다! 외칠 수 없었다.

남준은 방으로 들어갈 수 없어 밖에서 서성거렸다. 작은아들이 남준이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남준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막대기에 걸어 마당으로 던졌다.

“우리는 문둥이하고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나가!”
아무도 밖을 내다보는 사람은 없었다. 남준은 옷가지와 소지품을 주섬주섬 들고서 마을을 떠났다.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남준은 절망했다.

계절은 바뀌어 막 봄이 오고 있었다. 그나마 한겨울을 웅기거미에서 보낸 게 다행이었다.

버들가지에서는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순이 돋아나고, 개나리꽃은 막 만개하려고 붕우리를 한껏 살피고 있었다. 불어오는 바람도 순했다.

계절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봄으로 치닫고 있는데 남준은 차가운 동토의 세계로 쫓겨나고 있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문둥병은 하늘에서 뚫쇠운 병이라 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확실하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우선은 확실하게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남준은 신작로를 따라 고창읍으로 걸어들었다. 빨치산은 고창지역에서 점점 세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창작 역량 강화 · 공연장 활성화 탄력

남원시 국악공연장 청아원 · 민간예술단체 청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선정

남원시 국악공연장 청아원과 민간예술단체 청년이 전북도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6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도비 7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공공 공연장과 지역 예술단체가

협력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이번 선정에 따라 양측은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청아원의 상주단체로 선정된 청년은 남원 지

역 청년 예술인들로 구성된 전통연희단으로, 국악에 현대적 요소를 접목한 독창적인 창작 활동으로 전국 단위 공연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창작 공연 남원 재주꾼 모집공고(1회) △우수 레퍼토리 공연 광한루원에 피어난 연희꽃(1회) △빛나는 밤에 청(1회) 등과 문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 참여형 체험 · 교육 프로그램인 ‘땀! 예술이 도착했습니다’를 총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5회 주천면 산수유 꽃축제’ 20~21일 개최

남원시 주천면은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이틀간 용궁리 산수유 군락지 일원에서 ‘제15회 주천면 산수유 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산수유 꽃길 따라, 가족의 봄이 머무는 주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천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다. 축제는 식전행사와 기념식을 비롯해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F&B) 버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산수유 꽃이 만개한 풍경 속에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20일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과 행사 등 지역민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둘째 날인 21일에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과 공연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